

인터넷 도박 도용... 아이핀도 못 믿겠네

광주경찰, 개인정보 빼내 게임·환전 4명 입건

구멍난 주민번호 대체 인증 수단...대책 절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쓰이는 아이핀(i-Pin) 도용이 심각한 상태다.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신분 확인 수단으로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명의도용된, 이른바 '대포 아이핀'을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다,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형편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속칭 '짱구방'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 머니를 불법 환전해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환전상 신모(48)씨를

구속했다. 또 짱구방 운영자 김모(35)씨 등 나머지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아이핀 1000개를 50만원에 구매했다는 점에 주목, 때로는 주민번호 등으로 명의도용된 아이핀을 대량 발급해 판매하는 조직을 쫓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달 25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S오피스텔에 컴퓨터 8대를 설치해놓고 50만원

? 아이핀(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2005년에 도입된 개인고유식별번호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된다. 주민번호와 달리 생년월일이나 성별 등 개인정보가 들어 있지 않고 변경이 가능하다. 아이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용된 1000개의 아이핀을 이용, 게임사이트에서 사기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짱구방은 같은 장소에 2~3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뒤 각각 다른 아이핀으로 동시에 하나의 게임방에 접속해

상대방과 맞고·바둑이·포커 등을 벌여 게임머니를 따가는 게임방이다. 화면상으로는 한 게임방에서 5명이 게임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2~3명이 짜고 상대방과 게임을 하는 셈이다.

신씨의 부하직원인 짱구방 운영자들이 따낸 게임 머니는 불법 환전하는 과정을 통해 현금화됐다.

신씨는 지난 1년6개월간 자신들이 인터넷에 올린 불법 환전 광고를 보고 찾아온 게임이용자 9453명으로부터 61억5100만원을 불법 환전해왔다.

이중 10%인 6억 100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아이핀 팝니다"는 광고를 보고 아이핀을 구매했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스팸이나 파밍 사건처럼 불법 아이핀 발급 조직도 중국에 있을 가능성이 커 핵심 피의자 검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아이핀도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다양한 방식의 본인인증 방식을 적용, 개인정보 유출 및 2차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주말 가족과 함께

봄꽃 구경 가세요

광주·전남 서늘한 날씨

주말 광주·전남지역은 맑은 가운데 이상고온 현상이 풀리면서 서늘한 기운이 돌아 날씨가 좋아졌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고 기온이 23도, 보성 22도까지 오르는 등 광주·전남지역이 20도를 웃도는 다소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기상청은 4일 오전부터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되면서 찬 공기가 함께 내려와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나타난 이상고온 현상이 다소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 12도, 목포 10도, 여수 14도 등 광주·전남이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으며, 바람이 세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아 다소 쌀쌀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주말인 5일과 6일 역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이 평년(5~18도)보다 낮은 다소 서늘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16분 해질 18시 56분 달돋이 09시 12분 달질 23시 28분

미세먼지 '보통'

일교차 크니 건강에 유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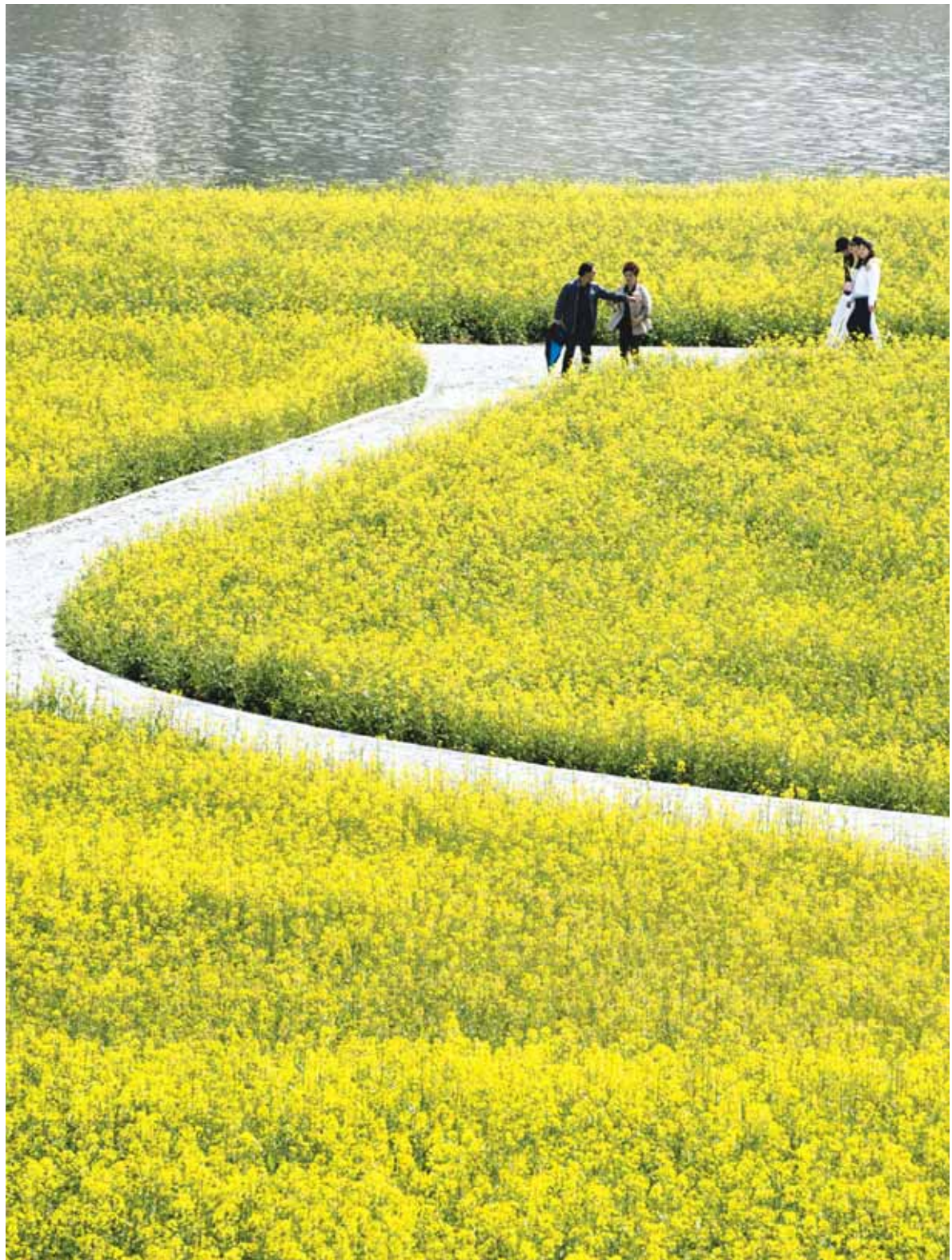
광주	맑음	4/12°C
목포	맑음	4/10°C
여수	맑음	6/14°C
나주	맑음	2/12°C
완도	맑음	5/12°C
구례	맑음	3/13°C
강진	맑음	3/12°C
해남	맑음	3/11°C
장흥	맑음	3/13°C
순천	맑음	5/14°C
영광	맑음	3/10°C
진도	맑음	4/10°C
전주	맑음	3/12°C
군산	맑음	3/11°C
남원	맑음	1/12°C
옥산도	맑음	7/10°C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5m	식중독지수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주의	높음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5(토)	6(일)	7(월)	8(화)	9(수)	10(목)
날씨						
최저/최고	3/12	4/16	5/18	8/20	9/20	9/19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영산포 둔치 유채꽃 만발 이상 고온현상으로 광주·전남에 연일 따듯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주시 영산포 하천 유희부지에 유채꽃이 만개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오는 13일 오전부터 유채꽃 전국 사진촬영대회와 25일~ 27일까지 영산포 흥어축제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학생 자살, 대책없는 학교

광주 사람들, 인건비 부담에 상담 인력 안뒀

일주일 새 광주에서만 중·고교생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막을 안전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전문인력이 없는 학교가 상담수에 비해 '자살 고위험군'에 속한 학생들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1일 광주 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남학생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이 학생은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1학년 때부터 관리대상이었지만, 해당 학교에는 학생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할 전문 상담교사나 상담사가 1명도 없었다.

숨진 학생은 이 때문에 학교에서 상담 받지 못하고, 지역정신건강검진센

터에서 관리를 받았다. 하지만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학생이 외부 센터에서 상담을 제대로 받았을 지는 의문이다.

학교 측은 뒤늦게 전문 상담인력 채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상담인력 부재는 사립학교가 훨씬 심각하다.

학생들의 고민을 상담하는 '위(Wee)클래스'가 설치되지 않은 광주 지역 중·고교는 20곳에 달했다. 이 중 중학교는 4곳, 고등학교가 16곳이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 사립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는 아예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이처럼 위클래스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문 상담인력이 없다는 것

을 뜻한다. 이번에 자살 학생이 발생한 학교 역시 사립학교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경우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전문 상담인력의 채용을 꺼리고 있다"며 "채용권이 재단에 있어 교육청으로서는 달리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의 고위험군 학생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학교와 광주시교육청이 고위험군 학생의 자료를 공유하지 않으면서 사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위험군 학생의 신상은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공개되지 않아 교육청에서는 알 수 없다"며 "고위험군 학생은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한 1대1 심층 상담이나 희망교실을 통해 꾸준히 멘토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정렬기자 jwpark@kwangju.co.kr

www.treksta.co.kr

Treksta

KOBRA WALKING 140

트렉스타 코브라 워킹 140 출시기념

워킹화를 사면 배낭이 공짜

트렉스타 광주 흑석 직영매장 062)956-8338

용봉점 062)511-2110 / 송정점 062)945-3393 / 롯데 광주수원아울렛 062)616-2207 / 롯데 광주월드컵아울렛점 062)606-2933 / NC백화점 광주점 062)510-7712

매장개설 상담 010-4872-6029(권순혁 부장)